

제11호·2016년 4월 20일

미래전략연구본부 | 국제물류연구실
총괄·감수 | 이 성 우 실장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이슈

러시아-중국, 국제교통회랑 개발에 따른 교역량 증가 예상

국제교통회랑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 현황

- 국제교통회랑인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는 과거부터 이용된 극동러시아와 중국 동북 2성(헤이룽장성, 지린성)간의 운송루트임
 - 프리모리예-1 : 하얼빈 – 블라디보스토크/나호드카/보스토치니 – 동북아 주요 항만
 - 프리모리예-2 : 훈춘 – 크라스키노 – 포시에트/자루비노 – 동북아 주요 항만
- 2016년 1분기동안 ‘프리모리예-1’을 이용한 운송횟수는 총 2회, 화물량은 약 51톤이며, ‘프리모리예-2’를 이용한 운송횟수는 총 97회, 약 1,380톤의 화물을 운송함
 - 2015년 기준 ‘프리모리예-1’을 이용한 운송횟수는 총 143회로 화물량은 약 836톤이며, ‘프리모리예-2’를 이용한 운송횟수는 총 301회, 약 3,864톤의 화물을 운송함
 - ‘프리모리예-1’과 ‘프리모리예-2’를 이용할 시 주요 운송수단이 다르며, ‘프리모리예-1’은 철송을, ‘프리모리예-2’는 주로 트럭킹으로 화물을 운송함

국제교통회랑 통관지점 및 운송수단별 수용 가능량(1일 기준)

지역명	수단	수용 가능량
크라스키노	도로	화물차량 48대, 버스 40대
파그라니쉬니		화물차량 100대, 버스 40대
파그라니쉬니	철도	화차 32량, 승객용 열차 4량
마하리노		화차 20량
보스토치니	항만	선박 24척
블라디보스토크		선박 25척
자루비노		선박 4척
포시에트		선박 1척
슬라반카		선박 5척

자료 : Portnews, <http://portnews.ru/news/217527/>(검색일 : 2016년 4월 14일), KMI 재구성



- 현재 국제교통회랑 '프리모리에-1'과 '프리모리에-2'에 위치하고 있는 통관지점은 총 9개 지역으로 블라디보스토크, 크라스키노, 마하리노, 보스토치니, 자루비노, 포시에트, 슬라반카 등이 있음
- 각각의 통관지점에서는 운송수단별로 수용가능량(1일 기준)이 정해져있으며, 운송수단은 도로, 철도, 항만으로 나누어짐
- 블라디보스토크 통관지점의 경우 1일 당 선박 25척, 크라스키노의 통관지점의 경우 1일 당 화물차량 48대, 버스 40대, 마하리노 통관지점의 경우 1일 당 화차 20량임
- 이외 파그라니쉬니 지역은 차량 및 철도의 통관지점이 있으며, 화물차량은 100대, 버스 40대, 화차 32량, 승객용 열차 4량으로 통관지점 중 1일 기준 가장 높은 처리능력을 가짐

국제교통회랑 통관지점



자료 : Portnews, <http://portnews.ru/news/217527/>(검색일 : 2016년 4월 14일), KMI 재구성



국제교통회랑 개발 및 극동러시아 대중국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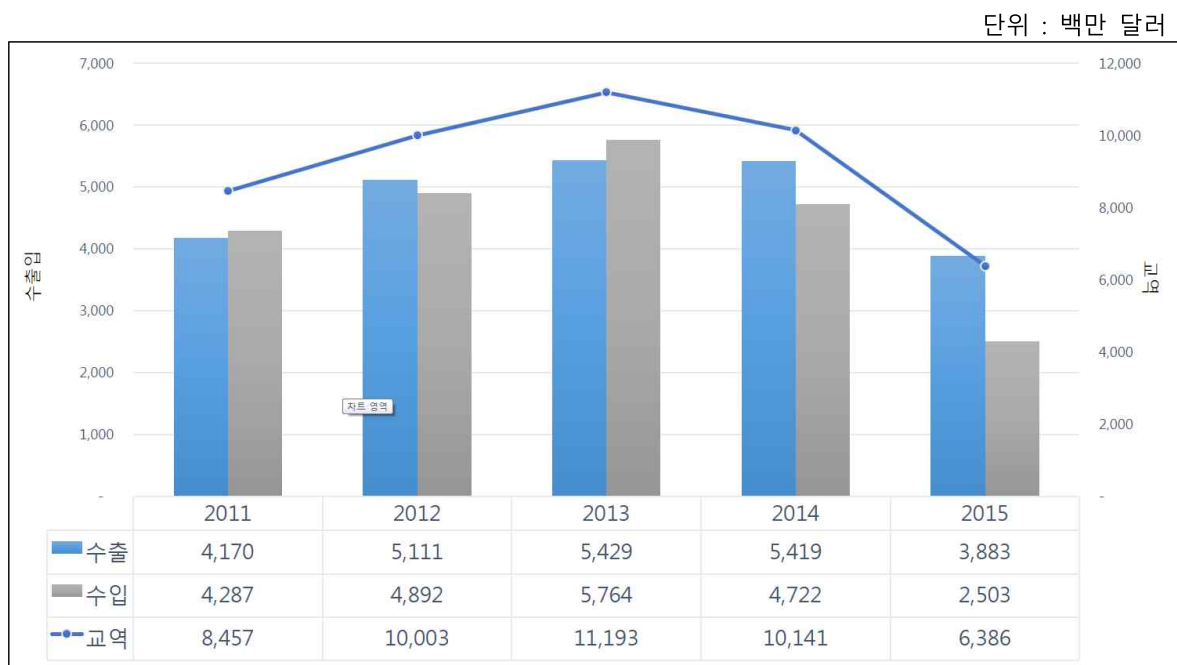
- 2016년 4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러시아-중국 회담에서 국제교통회랑인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 개발 논의를 함께 따라 양국간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회담에는 극동개발부, 극동개발공사, 극동개발기금,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중국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석함
- 이번 회담에서 중국측은 '프리모리예-1'에 대한 금융·경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러·중간의 상호이익을 충족시킴
 - 국제교통회랑인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를 통해 운송 시, 극동러시아-동북 2성(헤이룽장성, 지린성)간 운송비용이 매년 약 10억 달러 절감됨
- 2015년에 극동개발부와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양국가의 산업 및 투자협력을 강화하고자 북극항로와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와 같은 국제교통회랑 및 국제항로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교통회랑 개발의 첫 단계인 양국간 합작회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러·중 합작회사는 러시아 자본 20%, 중국 자본 80%가 투입될 예정이며, 중국의 경우 투자금 회수기간이 10년으로 예상함
- 러·중간 교역에서의 나타나는 장애요인으로서는 교통 인프라의 현대화 외에도 자주 언급되는 것은 통관 문제임
 - 이에 따라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원활한 통관절차를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하고자 함
- 극동러시아 대중국 수출입은 2013년 최고치를 기록 후, 계속해서 하락선에 있음
 - 2011년 기준 극동러시아 대중국 수출입은 각각 약 41억 6,956만 달러, 약 42억 8,742만 달러였으며, 2013년 약 54억 2,924만 달러, 약 57억 6,373만 달러로 증가함
 - 하지만 이후 교역량은 줄어들었으며, 2015년 극동러시아 대중국 수출입은 각각 약 38억 8,271만 달러, 약 25억 323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함
- 하지만 러시아-중국 정부의 노력에 따라 국제교통회랑 '프리모리예-1'과 '프리모리예-2'를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량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 2015년 극동개발부 장관은 2025년까지 국제교통회랑을 이용한 연해주-중국 간 무역



량이 약 1억 7,0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프리모리예-1'과 '프리모리예-2'를 통해 연간 약 8,000만 톤과 약 9,000만 톤을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¹⁾

극동러시아 대중국 수출입 현황



자료 : 극동관세청, <http://dvtu.customs.ru>(검색일 : 2016년 4월 15일)

시사점

-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각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신동방정책'과 '일대일로'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제교통회랑인 '프리모리예-1'과 '프리모리예-2'는 서로 Win-Win할 수 있는 협력 수단이 됨
- 중국의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의 경우 내륙지역으로 교역을 위한 항만이 필요하며, 극동러시아의 경우 동북 2성의 시장 잠재력을 통해 극동러시아 항만 물동량을 창출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양국은 정부차원에서 교통인프라 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며, 1회성이 아닌 연속적으로 양국가가 협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
- 또한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에 따라 '프리모리예-1',

1)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 '러시아 극동지역 언론 주요기사'(2015.11.25.), p.1



‘프리모리예-2’ 운송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자유항 내 24시간 통관운영체제인 ‘One Window’ 시스템과 화물 사전전자신고, 해외참여자들을 위한 통관자유지대가 운영될 예정임²⁾
-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 국제교통회랑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 루트를 이용한 화물의 시간적·경제적인 경쟁력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며, 극동러시아-중국간의 교역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http://portnews.ru/news/217786/>(검색일 : 2016년 4월 14일),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196(검색일 : 2016년 4월 14일)

김은미 연구원

051-797-4778, usea1004@kmi.re.kr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극동러시아 동향리포트 제10호(2015.04.06.), p.5



물류동향

FESCO,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간 정기 컨테이너 열차 운송 개시

- FESCO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즈베키스탄 카라쿨(Karakul) 간 컨테이너 철도 운송편인 FESCO 부하라 셔틀(FESCO Bukhara Shuttle, FEBS)의 운영을 개시함
 - 열차 운행은 월 2회 이루어 질 것이며 열차서비스 중 하나로 도착지까지 라스트마일배송(Last mile delivery)³⁾을 제공할 예정에 있음
 - 물동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화주의 화물을 모두 수용할 예정이긴 하지만 주로 운송할 화물로는 총 26억 6천만 불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칸딤(Kandym)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이 될 것임
 - 우즈베키스탄 내에 로컬 서비스는 FESCO와 우즈베키스탄 로컬회사인 알데나 트랜스포트(Ardena Transport)가 제공하게 될 것임
- 첫 컨테이너 열차운송은 4월 10일 카라쿨에 도착하면서 개시되었으며 총 운송기간은 11일 소요되었고 총 운송거리는 9,230km임
- 이 외에 FESCO는 FESCO 타쉬켄트 셔틀(블라디보스토크역 – 타쉬켄트 추쿠르사이역(Chukursay) 간 정기열차), “발틱카-트란짓”(발틱해에 있는 항만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잇는 정기열차) 운송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 FESCO 부하라 셔틀은 중앙아시아에서 FESCO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아태지역 국가들의 물동량을 극동을 통해 중앙아시아로 운송하고자 하는 전략을 위한 것임

자료: <http://tass.ru/transport/3199428>(검색일: 2016년 4월 14일)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i@kmi.re.kr

3) 라스트마일배송은 말단배송이라고도 불리는 공급망 관리와 수송계획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최종 물류허브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제품을 배송하는 행위



2020년부터 극동에서 러시아산 선박건조 가능하게 될 것

- 극동지역에 대부분 종류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선소 건설이 진행될 예정임
 - 현재는 조선소 건설 이후 선박 건조능력을 최대치로 이용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선박수주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이 필요한 상태임
- 현재까지 러시아 선주 및 운송기업들은 선박발주를 주로 한국 또는 중국과 같은 해외 조선소에 의뢰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극동러시아 지역에 조선업 발달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대통령을 통해 언급되었음
- '즈보즈다' 조선소 건설의 가장 큰 목적은 국내 선박 수요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임
- 러시아 조선업의 발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선 복합단지 '즈보즈다(Zvezda)'가 건설 중인 '볼쇼이 카멘(Bolshoy Kamen)'지역을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함
 - 이 복합단지는 연간 33만 톤까지 처리 가능한 대형선박 건조가 가능할 예정임
 - 주로 생산되는 품목으로는 최첨단 대형선박, 오프쇼어 및 온쇼어 석유가스 시설 장비,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쇠빙기능을 포함한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선박 등이 있음
 - '즈보즈다' 조선소는 2016년도에 공사 착수하여 2024년 완공될 계획임
 - 조선소의 주된 투자자 선정은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로스네프티, 극동 선박건조 및 선박수리 센터(Far Eastern Shipbuilding and ship repair center), 러시아 국영조선그룹인 연합조선기업(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이 조선소 투자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4월 중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자료: <http://tass.ru/transport/3177497>(검색일: 2016년 4월 16일)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i@kmi.re.kr

물류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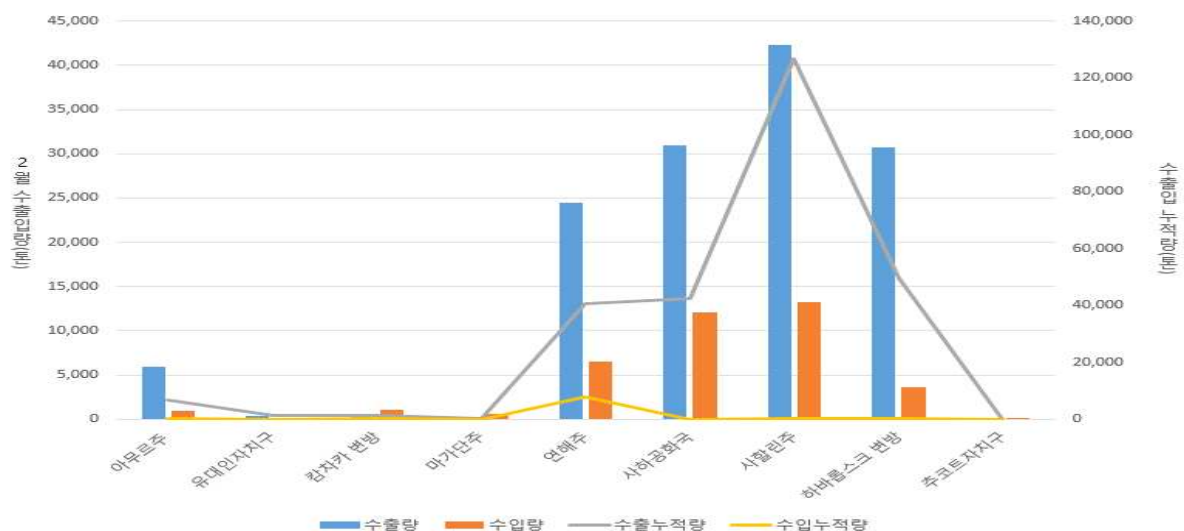
극동러시아 연방주체별 물동량 및 수출입액 통계(2016.1.-2.)

단위: 천 달러, 톤

구 분	2016년 2월				2016년 1월-2월	
	수 출		수 입		수출누적량	수입누적량
	수출량	수출액	수입량	수입액		
극동연방관구	13,546,021	3,806,319	501,759	978,671	26,938,566	916,627
1. 아무르주	590,770	96,991	15,716	46,240	690,281	27,927
2. 유대인자치구	39,689	9,410	2,588	5,349	140,089	6,696
3. 캄차카 변방	65,181	101,873	10,416	8,905	138,738	12,390
4. 마가단주	14,959	63,053	2,805	18,614	34,132	5,526
5. 연해주	2,449,010	650,840	426,890	639,242	4,057,611	777,771
6. 사하공화국	3,094,382	1,205,748	3,049	6,949	4,245,464	5,013
7. 사할린주	4,224,039	1,322,405	18,293	184,223	12,687,689	39,358
8. 하바롭스크 변방	3,067,978	355,985	21,901	66,545	4,944,549	39,935
9. 추코트자치구	13	14	100	2,604	13	2,011

자료: 극동관세청, <http://dvtu.customs.ru>(검색일: 2016년 4월 19일), KMI 재구성

2016년 2월 연방주체별 물동량 및 수출입액 그래프



자료: 극동관세청, <http://dvtu.customs.ru>(검색일: 2016년 4월 19일), KMI 재구성



공지사항

제3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정책토론회 (제6차 한-러 극동포럼) 개최 안내

- 제3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정책토론회(제6차 한-러 극동포럼) 및 B2B 상담회가 6월 7-9일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정책토론회 및 B2B 참가희망 기업은 참가 신청서를 작성, 4월 27일(수)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정책토론회 개요
 - 시 간: 2016. 6. 8(수) 08:45 – 18:00
 - 장 소: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현대호텔 다이아몬드 A홀
 - 주 최: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KMI
 - 주 관: 한-러공동연구센터 / KOTRA
 - * 자세한 세부 프로그램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Made with Russia' B2B 상담회
 - 시 간: 2016. 6. 8(수) 10:50 – 18:00
 - * 본행사(다이아몬드 A홀)와 병행해서 진행
 - 장 소: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현대호텔 다이아몬드 B홀
 - 주 최: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 주 관: KOTRA / KMI
 - 대상기업: 수산, 물류, 의료, 기타 전반 분야 등 극동 러시아 진출 희망 기업
- 포럼 및 B2B 참여 문의 및 접수
 - 포럼 및 B2B 접수 방법: 첨부 신청서 작성 후, 메일 송부
 - * 최종 선정여부 추후 통보 예정
 - 문의 및 접수처
 - ※ KOTRA 중아CIS팀 김택영 대리(02-3470-3297/ rowan@kotra.or.kr)
 - ※ KMI 국제물류연구실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i@kmi.re.kr)